

防火隨筆 懸賞募集當選作

韓國火災保險協會, 국내 처음으로 募集

韓國火災保險協會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불조심에 관한主婦隨筆을懸賞募集했다.

지난 3月19일부터 4月25日 마감한 이번懸賞募集에서는詩人朴木月氏에게審査를依賴嚴選한 결과最優秀作 1編, 優秀作 2編, 그리고入選作 10編이選定됐다.

本協會는 당초當選作과佳作만을選定할計劃이었으나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入選作 10編을 더選定하게 되었다.

앞으로本協會는當選된 글들을單行本으로 만들어 널리普及할計劃인데 우선最優秀作 및 優秀作 2編만을本誌에掲載한다.

※最優秀作※

불난人事

소진원

<서울 동대문구 진농 4동 558~93>

나는 몇 해전의 D백화점의 컷 큰 화재를 아직도 머리속에서 못 지우고 있다. 그때 D백화점안 2층의 양품점을 가지고 있어 직접 화재를 당했던 당사자이기도 해서지만 아주 놀라움이 컸었다.

언제인가 집에서 조그만 합선사고가 있는 후로는 그렇게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한 불을 겪기는 처음이었다. 그것도 한 곳에서만 세차레씩이나 큰 불을 겪고나니 사이렌 소리에만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요즈음이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불났다는 뉴스에 얼마나 놀랐는지……”

꽤 먼 거리임에도 웃도 갈아입을 사이없이 한 달음에 달려온 조카며느리, 아이들의 외숙모들,

친정 막내동생, 그 때 나는 후들거리는 손의 떨림을 애써 진정시키며 말을 잃었었다.

몇년을 두고 거의 잊을 무렵쯤이면 수인사로 받는 게 불난 인사였다. 그리고 그 인사를 듣게 될 때 마다 속으로 씩씩해 했다. 잘못인줄 알면서 새로 갈아댄 이불에 또 오줌을 싸버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 그러한 인사를 듣게 될 때 마다 나는 공연히 먼구스러워 우물쭈물 얼버무리게 되곤 한다.

처음번의 불은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한참 무르익을 무렵이었던 팔월오일쯤인가로 기억이 된다. 아이들은 저희 각자가 방학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몇 마디를 일러주고 집을 나섰다.

그날 진열은 일찍 끝낼 수 있었다. 손님들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들기 시작 할 것이므로 나는 이웃 양품점의 가게주인과 물건애기를 건네며, 나와 교대하기 위하여 올 셋째 아이를 기다렸다. 불이 난것은 그 때 전이었다. 일층에서 났으니 이층에까지 쉬이 전해질리도 없거니와 간혹 가다가는 적게 불이났다가 곧 소화작업으로 꺼지는 수도 있었다.

주위가 소란해졌다. 누구인가가 아랫층에서 불이났다고 소리를 쳤고 이어서 건물안의 경비원들이 빨리 밖으로 나가도록 환기시키는 소리가 소란스러웠다. 중앙계단이었다. 꺼낸 땀방울의 매캐한 연기가 치솟고 금세 목이 칼칼해 왔다.

“왜들 그렇게 멍청히 서 있거만 하누? 빨리 움직이지들 았구!”

건너편 양품점 땀방울이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바빠 보통이를 꾸러냈다. 아동용품부의 숙이라는 아가씨는 핸드백 하나만 손에 들고 발을 동동 굴러대고 서 있었다. 나는 그때서야 정신이 나는 듯 싶었다. ‘아 불이났다고 했지……’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깬 듯 싶기도 했다. 맨 먼저 손에 짚힌 것은 산지 몇일밖에 안되는 선풍기였다. 그 다음번에는 지갑, 그리고 바로 오늘 떼어온 부라우스 몇 벌……총계를 내려서는데 여러대의 소방차 소리가 귀에 들렸다. 진이 엄마라는 이는 물건을 한 보따리를 꾸러 머리에 이고 내 걸을 쫓아오며 내내 소리도 안내고 눈물을 주루루 흘렸다. 가게문을 연지 열흘도 안되었는데 불을 만난 것이었다. 같은 처지일 수 밖에 없으면서도 가슴이 아렸다.

밖을 나와보니 사람들이 구름떼였다. 가게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불은 아주 크게 난 모양이었다. 비로소 숨을 들이쉬 수 있는 것만 보아도 그러했다. 소방차랑에 섞여 갖가지 차량들이 보였다, 길은 물로 질펀하고 고가사다리차, 뭘지도 몰 소리들의 아우성, 경찰의 호각 소리. …도무지 정신이 없었다. 불은 거칠것 없이 타들어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굵은 물줄기에도 아랑곳 하

지 않고, 검은 마귀와 같은 연기 그늘음 속에서도 검붉은 불뿔바닥을 널름거리는 것이 보였다. 벌써 이층창을 통해 활듯이 타고르고 있는 불길이었다. 웬지 삭신의 힘이라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썩 빠져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울 수도 없은 이럴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다. 내 삶의 의지의 일부가 훨훨 타 없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선풍기와 옷가지 몇 점이 지금의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인양, 손에 힘주어 들고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흐려보였다. 나는 어디로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벗어날지를 몰라 무조건 불로부터 멀리만 갈 수 있게 비집고 나갔다.

여덟남매 그리고 지금의 나보다 더 놀라웠을 사무실의 아이들의 아버지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여덟아이 중의 하나가 내가 아직 저 속에 있을까 못내 걱정하여 뛰어가기라도 한다면! 눈앞이 아찔했다. 또 셋째아이가 나와 엇갈린 길로 하여 저 속에 있다면! 뒤섞여지는 불길한 생각이 잠시를 안두고 물끓듯 했다.

“엄마가 무사하단 길 보여줘야 할텐데……”

이 많은 사람들의 어느 틈바구니에 끼여 좁은 가슴을 태우고있을 것만 같았다. 막내 현이까지.

빨리 집으로 가는 것이 제일 나을듯 싶어, 막 걸음을 빨리 했을 때 었다. 누구인가가 내 저고리 소매를 움켜쥐는 것이었다. 돌아다 보았다.

“엄마……”

둘째놈이었다. 나는 갑자기 고여드는 눈물로 하여 흔들려보이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언제 둘째놈이 이렇게 키가 자라있었던가? 나는 고3이나 된 남자녀석 담지않게 눈물이 그렇게 그렁한 아이의 눈속을 못 본 체하며 애써 태연했다.

시장 어귀를 들어서기가 바쁘게 여기 저기서 자주 오고가 얼굴만 익혔을 뿐인 사람들이 야단들이었다. 반찬가게의 아는 처녀는 큰 보자기를 내와 선풍기와 옷가지 몇 점을 싸서 손에 들려

주기도 했다. 걸어서 십분도 안 걸리는 집까지의 거리를 붙이난 인사를 주고 받는 일로하여 집까지가 늦기만 했다.

경황이 없는 중에도 큰일을 저질르고 숨겨 놓은 것 처럼이나 가슴 한켠이 짝 메어움을 떨어낼 수 없었다. 아이들은 다 무사했다. 그 날 저녁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작은 동서며 조카들 또 여덟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온통 범석이었다. 그때까지도 불은 꺼지고 있지 않았다. T.V는 새로 확인된 사망자며 중상자의 명단을 알려주고 있었다. 전화벨이 쉼사이 없이 울리고 그때마다 진정제 알약의 효험도 없이 가슴이 마구 뛰었다.

“엄마, 잔칫집갈지?”

국민학교 육학년짜리인 현이가 내 눈치를 살피며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들이 많이 와 준 것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 듯 했다.

“불난 잔칫집이라고 하잖아 왜.”

어정쩡한 기분이 들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놀라움과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친구들의 위로 전화에 너털웃음까지 섞는 것이었으나 나는 여전히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기 어려웠었다.

붙이난 인사는 D백화점이 내부수리며 손질을 다 끝내고 다시 문을 열때까지도 이어갔다. 며칠이 지난뒤에야 소식을 듣게된 친정 막내 동생은 소식을 들은 날 밤은 온통 뜬 눈으로 새웠다고 뒤에 얘기를 했다.

불이 꺼지고 난 뒤 찾아본 우리 가갯터에는 뼈대만 김계 드러난 긴 등의자와 옷걸이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곳 마다 허허벌판의 잿더미며 그을음이 짐계 남아 있는 벽이었다. 불은 모두 다 가지고 가고 말았다. 가지각색의 물건들과 먼저 한 점 없이 말끔했던 진열대, 하루 몇 차례인가의 정소로 반들반들했던 통로며.

“불이 그렇게 크게 났으니 얼마나 놀라셨어요 손해 많으셨지요?”

“물건보다 사람이 안 다쳤으니 다행으로 여겨야지요.”

“무슨 보험인가두 들어두시지 않으시구……”

가지 가지의 술한 인사가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인삿말만으로 곧 위로받을 수 없듯이 마음이 안타깝기는 여전했다.

그런데 불은 세번째나 났다. 두번째는 많은인명의 피해가 있었다. 구구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불을 막아준다는 돌 해태를 백화점 앞에 세워야 한다니 전에 들부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서 큰 불이 잦는거라니……보험에 들지 않은 집이 거의 없었다는 둥이었다. 설마 또 불이 날까 하는 이들도 있었다. 거짓말 같게도 세번째의 큰 불이었다. 밤 열한시가 넘었을까. 사이렌소리가 밤의 정적을 뚫고 내달리고 있었다. 가슴부터 뛰었다.

“또, D백화점일까?”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장독대 위에 올라가서 살피고 내려온 둘째놈이 또 D백화점 쪽이라고 일러 주었다.

“또 어떻게 해서 불이났을까!”

한시도 눈을 붙일수가 없었다. 잿더미의 가갯터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 거렸다. 어제 손님의 주문으로 들여놓은 코트가 이글거리는 불에 재로 화하는 모습이 감은 눈속에서도 활활 타올랐다.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다. 원인은 담배꽁초 불의 양탄자 인화였다고 실려 있었다. 원인이야 지금 캐어본들 사후 약방문이지. 실게 가슴이 들끓었다. 한숫가락의 물로도 능히 숨을죽일 수 있는 작은 불씨로 그렇게 큰 덩치의 건물을 삼키게 하다니!

불난 인사를 다시 똑똑히 치루어야 했음은 물론이지만 첫번의 그 범석은 없었다.

걸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나는 가끔 야궁이에 군불을 지피우게될 때, 그 널름거리는 불의 헛바닥을 눈여겨 보면서 이 작은 불꽃이 큰

불로 건잡을 수 없는 큰 화마로 변할 수도 있을
을 실감하곤 했다.

“엄마, 삼세번 불이 났으니깐 이젠 불 안날꺼
야, 그치?”

“삼세번씩이나 그럼 불이나게……? 반 번두

나지 말아야지,”

불은 인간의 지혜다. 불을 잘 다뤄 지혜롭게 생
활에 써야할 것 같다.

정말이지 불이난 人事는 다시 듣지 않기로 결
심했다.

✧ 優秀作 ✧

精誠의 季節

李 秀 娟

〈서울시 강남구 잠실동 주공 Apt 1단지 9동 308호〉

나는 지하실 다방에는 가지 않는다. 부득이하
게 가는 일이 있게 되면, 주방에서 제일 멀고 비
상구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를 찾는다.

이 얘기를 하자면 먼저 나의 첫사랑 재영이를
말해야 한다.

내가 다니던 대학의 축구 선수였던 그는 백 칠
십 팔 센터의 미남이었다. 내가 그의 애인이 되
었다는 것은 같은 학교 여자 아이들의 선망의 대
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봄, 가을의 축구시즌이던 내가 괜히 으쓱해져
서 교문을 드나들었고 그의 옆자리가 항상 나의
것이라는것이 자랑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의 봄이었다. 이미 스타
·플레이어로 유명하던 그의 밝은 성격은 나
를 사로잡았다. 달아나는 풍선을 되잡은 아이같
이 행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그의 나에 대
한 사랑도 나에 못지 않았다. 그에게 연습이 없
는 날이면 아침부터 만나야만 했다. 연습이 늦
게 끝나는 날이면, 내가 그를 만나러 가야했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키워 나갔다. 누구 하나
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를 헤어지게 할 것은 아
무것도 없었다. 그가 졸업하던 우위는 결혼을 하
기로 했다. 4학년의 가을시즌이 시작 되었다. 대
학에서의 마지막 시험을 위한 그의 합숙이 시작

되었다.

그날은 괜한 기분때에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았
기에 그가 H다방에 갔던 것도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관철동 H다방에 큰불〉이라는 제목 밑에 그
의 사진이 동그랗게 나와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 병원까지 갔었는지는 생각이
나질 않는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는 미이
라처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붕대를 감고 있었
다.

그의 곁에 다가선 나는 어떤 두려움으로 하얗
게 질려 버렸다. 그에게 눈이 없었다. 그의 얼
굴은 온통 하얀 붕대뿐 失明의 위기마저 맞고 있
는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겨우 울음뿐
이었다.

나의 울음소리에 붕대를 감았던 손을 힘없이
치들다가 떨어뜨리는 그의 손끝이 떨고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H다방은 모카產의 커피맛이 유명한 곳이다.
가끔은 우리들의 테이트 장소로도 이용됐던 그
곳은 주방이 트여 있어서 커피를 만드는 것이 웬
히 보인다. 프로판 가스 위에서 끓고 있는 파이
랙스의 커피 포트가 유난히 눈에 띄는 그 작은
다방은 좁고 가파른 계단 저 밑에서 언뜻처럼 가

다앉아 있었다. 사방 벽에 떠다니는 열대어 때문만은 아닌듯한 그 분위기는 우리들의 좋은 안식처였다.

그는 연습이 끝난 후의 일과대로 그 곳엘 간 것이다.

화재원인은 프로판 가스의 과열이었다. 파이렉스 커피 포트의 투명함이 눈에 들어온다.

구렛나루가 인상적이던 주방장은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재영을 비롯한 십여명의 화상. 주방 제일 가까이에 앉았던 그가 제일 심하다는 그의 친구의 傳言은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커피 포트의 파편이 눈에 들어가서 이미 일차의 수술을 마쳤다는 그의 눈. 나의 사랑한다는의 마디를 그의 죽음같은 生命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다. 알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못알아 듣는 것 같기도 한 그의 모습은 우리의 최초의 슬픔이 되었다.

그는 고아같이 자라나서 어머니쪽의 친척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가 훨씬 어렸을 때 다른 곳으로 재가 해버렸다)

그에게는 이런 갑작스런 슬픔을 나눠가질 사람은 나 뿐이었다.

나는 오직 그의 回生만이 나를 구해 주리라는 신념에 말려들었다.

주위의 짓궂은 시선과 어머니의 반대를 버리고 그의 종이되기로 했다. 우선 학교를 휴학했다. 그가 없이 다니는 학교는 무의미한 것. 우리의 사랑의 힘은 처음은 그랬다.

안과의 재수술이 있던 날.

나의 그 처절했던 기도(그때까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었다)는 그에게 눈을 들려 주는 것을 십분의 일쯤은 도와 주었을까지도 모른다. 운명적으로 그의 눈마저 앓아가게는 되어 있지 않았나보다.

불에 데인 몸을 식염수로 씻어낼 때의 그의 비명은 나의 가슴을 온통 저며냈다. 50%의 화상을 입은 그를 살려내기 위한 의료팀의 노력은 그를 계속적으로 수술대에 올렸다. 2차 3차의 피

부 이식, 차도를 보이는 듯 하다가 네거티브의 반응을 일으키고 조직괴사가 되어 가는 상처에 썬<슈—도>군이 번식하기 시작했다. 실오라기 같이 늘어붙은 균의 하나 하나를 제거하는 작업은 그를 기진하게 했다. 그가 비명을 지를때마다 나의 가슴은 칼로 저며내는 아픔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설상 가상의 슬픔이 찾아왔다. 아니 슬픔이라기 보담은 분노였다. <슈—도>균에 좋은 약이 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의사의 얘기.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방측에서 부담하고 있었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다방의 주인이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배짱을 내밀고 있는 판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었다. 십여명의 치료비가 천만원도 넘게 나온 판이었으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집을 팔아서 병원에 갔다 마쳤으니까, 자기의 도의적 책임은 벗어났다고 말하는 다방측과 여자 하나뿐인 나의 싸움의 결말은 뻔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내가 그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였다. 아버지 몰래 건네주는 어머니의 눈물어린 돈이 그의 상처에 발라졌다. 중산층의 가정에서 5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왔다.

“너를 시집보낸 셈 치면 되지. 아무쪼록 좋아져야 될텐데.”

어머니의 나에 대한 걱려는 잊을 수가 없다. 훗날 그와 헤어질 걸심을 했을 때도 순진하기만한(?) 부모님 댁에 많이 망서려야 했다.

그래도 더 필요한 돈 때문에 나는 구걸을 다녀야 했다. 학교로 그의 선배들의 직장으로...

그는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적적인 결과>라는 병원측의 인사를 들으면서 화재 6개월만에 그와 나란히 서서 퇴원을 했다. 그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니깐 모든 피로감이 한꺼번에 엄습해 왔다. 태양 아래서 그와 나는 똑같이 현기증을 일으켰다.

완쾌라고 하기엔 너무 커다란 화상의 흔적과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그에게 내가 더욱 필요했다.

그때부터 내가 그에게 쏟았던 정성을 어떻게 글로 쓸 수가 있을까?

처음의 그는 자신을 간호하기 위해서 학교마저 포기해버린 나에게 죄스러워 하는듯 하면서도 예전의 늘름하던 모습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파탄의 처음은 그에게서 먼저 왔다. 축구를 할 수 없게된 그가 아직도 스타 플레이어의 향수때문에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의 보호자가 되기로 했다. 그의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결혼의 실재를 행하였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작한 산등성이 삭설지방에서의 생활은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 나는 생활의 방편으로 양품점의 점원이 되었다. 그러나 나의 부단한 노력도 그의 결심 없이는 힘든 것.

모든 것을 불과 함께 잃어버린 그를 나에게 너무 의지하게 한 것이 마이너스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술을 먹었다. 나의 귀가 시간 쯤이면 그의 통곡소리가 우리가 사는 동네를 온통 휘저어 놓았다. 그의 나에 대한 배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의 울음은 항상 내가 불쌍하고 자신이 불쌍하고 우리의 생활이 슬프다는 거다. 그의 녀두리가 불쌍해서 함께 불들고 밤새 울어버리는 비정상의 生活.

우리에게 어떤 용단이 필요했다. 무능력한 두명의 동거는 서로의 生命을 굶아 먹는 것, 그와 나의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를 좀더 좋은 환경으로 놓아 주기로 했다. 나는 그의 선배를 찾아다녔다. 그에게 밥만이라도 먹여주는 일자리 를 얻어 주려고.

남해안 어느 섬의 고등학교 축구 코치. 우리는 좀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헤어졌다. 그가 섬으로 가서 일년여, 우리는 대학시절의 연애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고 다시 모이기 위한 저금을

시작했다. H다방 사건 이후의 최초의 행복도 나에게 오래 있지는 않았다.

조금씩의 신의를 얻어가던 그가 갑자기 증발해 버린 것이다. 작은 섬에서의 증발은 곧 꼬리가 잡혔다.

서울에서 간 술집 작부와의 탈선, 어이가 없었다. 그가 그런 방법으로 나를 배신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

“혜숙이, 너 때문이야. 마치 나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生命의 은인 이기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려는 너의 그 가면같은 모습을 버린 그 옛날의 혜숙이를 닮았어. 순진하고 귀여운 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女子야.”

그의 절규같은 투정 속에서 나는 심한 혼란에 빠져 들었다.

<술집 여자와의 사랑의 도피>는 그를 그섬에서 마저 쫓아내 버렸다.

다시 나의 보호속에 돌아온 그가 더욱 심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은 당연했다.

“팔자 사나운 여자, 무서운 여자를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끝나는 구나.”

그의 배신은 끝이 없었다. 나의 사랑은 점점 연민과 증오로 변해갔다. 생활능력을 상실한 그와 그의 유일한 보호자인 나의 투쟁은 다시 일년이 계속되었다. 그는 실의에서 깨어 나지는 못했다.

나는 처연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를 구박도 해보고 싸움을 걸기도 하면서 그를 미워했다. 그리고 나의 팔자를 한탄하며.

그와 나는 좀더 인간다와 지기로 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여가며 식어버린 찻잔을 보듬을 수는 없는 것.

그를 버리고 돌아선 나는 홀가분함과 저편 구석에 진득하게 자리잡은 연민 때문에 눈물을 生成했다.

헤어진 보름쯤 후.

그가 나의 직장으로 찾아왔다. 며칠씩이나 세수를 안한듯한 얼굴로.

“오천원만 빌려줘. 나의 이 피물같은 얼굴이
진의 스타. 플레이어 <이재영>을 알고 있는 김
혜숙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구걸이
다.”

그의 당당한 요구에 건네준 돈. 나의 돈으로
사모은 약을 먹고 죽은 그의 주검은 끝내 나의
차지였다.

✧ 優秀作 ✧

유리배 얘기

李 蘭 浩

<서울시 중구 신당 2동 432~1202>

내가 열살 전후해서 자란 마을은 먼 소재지
로부터 꼭 그 작은 소읍을 길러 낼 만큼의 폭
과 길이가 알맞은 내를 끼고 삼십분 남짓 걸음
해서 만나지는 산.

이것만은 꽤 울창한 산. 그 산 아래에 있었다.
학교도 우체국도 면사무소도, 지서도 그리고 잡
화상도 모두 그 먼 소재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
리는 학교를 오가면서 동네 사람들의 편지 부치
기, 성냥이나 양젓물사오기 따위 심부름을 수
없이 했는데 그때마다 숫하게 그 냇물에 돌을
집어 넣었다.

“아서라 그물은 우리 고을 사람 모두를 먹여
살려 주는 거란다”

더러 낫선 할아버지가 우리의 팔매질을 멈추
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말투나 얼굴 표정 어느
한 구석에도 호령끼는 없이 눈에 함박 웃음을담
은 채여서 오히려 팔매질에 더 신이날 정도였다.

면소재지와 우리 마을 중간쯤에 “유리배” 배
집이 있었다. 그집을 땅집이라고도 했다. 산 허
리를 세로 베어내고 그 언덕을 파내어 집을 만
들어 집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아예
언덕이 집을 반 넘어 삼켜 버린듯도 했다. 벌에
서는 그냥 마른 삼작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

모든 증오는 사랑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
밖에. 나와 그의 청춘이 사그라진 그의 주검을
나의 손으로 묻어 주어야 했다. 그리고 작은 보
비를 새웠다.

“당신과 나의 젊음은 여기에 간직되어 있습니
다. 재영씨의 혜숙.”

기웃해 보면 굴을 막아서 방문구실을 하는 가마
때기 가리도 있었고 작은 항아리며 세숫대야도
보였다.

나는 그곳에 다다르면 마음이 무거웠다. 이상
하게도 그 빛바랜 솔가지 위에 햇살이 내릴땐
그런대로 그 위에 빛발이라도 뿌릴땐 또 그런데
로 그집은 슬픈같은 걸 내어 뺏는듯 싶었다.

늙은 빵장수 아버지랑 내 또래인 영순이가 살
았는데 왜 그 집을 아무도 영순네라 않고 유리
배네라고들 하는지 몰랐다. 모르면서 그냥 우리
도 그렇게 불렀다.

영순이는 학교를 아주 싫어해서 입학을 완강
히 거부했기때문에 우리랑 동행할 수 없었지만 자
주 그집 앞을 오가는 우리하고는 자연 낯이 익
어 있었다. 그때 우리가 “유리배야”하면 영순이
는 왠지 금방 대답은 않고 되래 삼작뒤로 일부
러 숨거나 휙 돌아서 버리거나 하고는 우리가 저
만큼 갔을 때에야 “왜에 야아”하고 높고 길게
그리고 경을 청하는 목소리로 몇번이나 대답하
는 것이었다.

그럴때 나는 그만 그 영순이에게 뭐든지 다주
고 싶어지곤 했다.

매일 매일 빵틀을 자전거에 싣고 면소재지로

빵을 구어서 나가는 영순이 아버지는 아침길에 우릴 만나 면 “느인학교 가니까 좋겠다. 그래 요샌 뭘 배우니?”

하고는 으레 곧 이어서 “공부 잘 해야지. 그리 구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이 아저씨를 보렴, 조심을 안해서, 이렇게 가난뱅이가 된 거란다.”

“무슨 조심요?” 우리가 합창을 하면 “차조심 물조심, 불조심”

하고는 어느새 저만큼 달려가 버렸다.

“피이! 차조심도 물조심도 우린 해야 하지만 불조심까지 우리가 해야되니? 불조심은 불 때서 밥하는 엄마가 해야지.”

“아니다. 담배 피는 아버지도 불조심은 해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유리배네에 대해서 어른들 한테서 주위들은 얘기를 제가꿈 지 켜이기 시작한다. 유리배네는 멀리 서울이라는 데서 땅 덩어리 만큼 큰 집을 갖고 가마니에 돈을 가득 가득 채워놓고 살던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만 불이나서 그 땅덩이 만한 집이랑 돈 가마니가 몽땅 타 버렸고 두번째 불이 났을때는 두 아이랑 영순이 어머니를 잃었고 겨우 영순이 하나만 꺼내 업고 정처없이 떠나 이곳에 이르렀다고 한 아이가 말하면 다른 한 아이는 으레 그제 아니고 영순이 어머니는 그 후에 영순네가 너무 가난 해서서 탄 곳에 시집가 버렸다고 고쳐 말했다.

아무튼 우리는 불을 두번씩이나 내어서 알거지로 되게한 영순 어머니가 형편 없이 바보라는데에서도 의견이 일치 되었다.

“우리엄만 한번도 불을 안냈다.”

“우리엄마도.”

“우리집도”

“영순이 엄마는 두번씩이나 불을 내니까 하느님이 별로 불귀신을 만들었을 꺼다. 그래서 팔랑 팔랑 날아 다니면서 아무래나 불을 지를꺼다.”

얘기는 이렇게 황당 무개하게 비약했다. 그러

나 우리는 그때 실재로 뒤를 훌끔 거리면서 서로 앞서 걸으려고 하면서 제각기 불귀신의 형상을 머리속에 그려보곤 무서워 했었다.

다시 유리배네 움막이 타던날은 내가 좀 췌이들 무렵의 이른 봄이었나 보다. 애들은 뭔가 신바람 같은걸 일구면서 그곳에 몰려갔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산 비탈로 부더 냇가까지 즐로 늘어서서 물을 퍼 건네 올리고있었다.

불이 꺼지고 이윽고 그슬린 양은 슬이랑 깨진 항아리랑 갯속에서 끄집어낸 못 볼 모양의 이불때기 저쪽에 가마니 가리개가 타버려서 방속은 그냥 입을 벌린 꺼먼 구멍이 있었다. 그 입구에 얼굴이 엉망으로 거명칠올한 빵장수가 같은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운명이요. 운명” 이렇게 들렸다. 누군가가 그래도 인명이 안 상해서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때도 “운명이요. 운명”하고 대답했고 다른 아저씨가 저 아래 동네로 내려가서 숨이나 깊이 내어 뿔으라고 할 때도 그렇게 대답했다. 그제서야 나는 영순이를 찾아왔다.

그때의 영순이. 그 영순이. 그에는 어떤 부인네의 희색빛 긴 치마를 목에서 동여매어 늘어뜨려 걸치고 서 있었는데 그 아래에 벌건 맨발이 보였다. 그에는 큰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나도 아무말도 못하고 그 애 얼굴을 바라봤다. 어른 치마를 걸쳐서 피기 하도록 커 보이기도 하고 가슴 막히게 가없어 보이기도 더했다. 그것은 내가 최초의 맞 닥드린 불행의 실체였으며 전날 그 앞을 오가며 느꼈던 암울했던 이유의 답이었다.

유리배는 이제 탄 아이였다. 우리가 아무리 정겹게 유리배야 불려도 그에는 대답을 안 하리라. 우리는 그 목소리를 못 들으리라. 영원히.

빵장수는 이미 누구에게나 끌려서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그래서 유리배는 한동안 그 모양으로 잊혀진듯 서 있어야 했다. 낙원으로부터 밀려난 아이. 눈 깜박할 사이에 그 애는 그렇게 됐

다. 그 후 얼마 안가 나는 그곳을 떴고 이십년도 더 지났는데 그 때의 영순이 모습이 아직도 내게 생생하니 허트러짐 없이 떠오른다. 맑은 냇물과 그늘 짙었던 산. 함박 웃던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재잘거림. 그 어린날의 영롱한 그림책에 영순이의 회색 치마가 내리 떨어뜨린 할때 나는 소스라치면서 늙은 빵장수가 되내던 운명을 향해서 차츰차츰 도전의 화살을 날리고 싶어졌다. 나는 영순이가 되어서 회색의 남루를 걸치고 검은 연기에 뒤 쫓기는 꿈을 얼마나 꾸었던가? 어느때는 유리배라는 투명한 진공의 직육면체 속에서 숨막히어 허덕이는 꿈도 꾸었다.

그러는새 내게는 하나의 유리배가 형체를 갖추어 자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불행의 요소로부터 불가침의 요람. 그 완벽한 차단체에 나는 불쌍한 영순이를 우선 태웠다. 그 다음 사랑하는 내 아이 낫익은 이웃 모두를 태운다. 내 나라의 착한 모두를 그리고 인류를 그곳에 태운다.

아, 실제로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 참말로 우리 인간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부터 벗어 날

수는 없을까?

알 수 없다. 우리는 참말로 모든 불행에 부도체인 유리배를 구축할 수 없는가? 역시 답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작고 다듬고 쪼아 맞춘다. 제가꿈의 유리배를 짓기 위해서 그들은 깜냥껏 노력한다. 혼한 말로 그것은 도로일 망정 그 뜻이 바른한 성스럽다. 무엇을 그들은 열심히 두드려 대는가? 나는 모른다. 구태여 말할 까닭도 없다. 그저 막연히 태만과 이유없는 낙관과 실속 없는 자만, 딱한 이기, 이런 따위 미운 말의 반대어들도 살아져서 이루어 지리라 믿는다. 그들은 적어도 재앙에 무방비였던 유리배네 처럼, 운명 어찌구는 안 하리라 확신한다. 이것은 즐겁다.

이윽고 다시 내 백일몽.

마지막 한사람 그가 났을때 나는 맨 마지막으로 내 방주에 올라 문을 잠그리라. 내가 가슴 아파해야 할 아무도 탁류에 빠뜨려 남겨두지 않고 문을 잠글 수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